

# 동아시아 담론의 등장과 세계 문학의 새로운 지형도 '아시아' 문학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미국으로 헤게모니가 옮겨가고, 특히 미국의 학자인 페어 뱅크와 라이샤워의 공저인 《동아시아: 위대한 전통》(1960)이 출간되면서 동아시아라는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담론이 활기를 띠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수용과 더불어 근대의 서구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찾고 있다. 동아시아 담론이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됨에 따라 '동아시아'를 키워드로 하는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가는 데 문화적인 측면, 특히 문학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글 정윤희 기자

## 동아시아 담론의 대두

'아시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보스포리스 해협 너머의 땅인 오늘날의 터키 반도쪽을 가리켜 부른 이름이었다. 유럽인들의 지리적 지식이 동쪽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외연도 확대됐다. 이렇게 커진 아시아를 원래의 아시아, 곧 터키 반도와 대비하기 위해 후일 아시아를 소아시아로 부르게 됐다.

아시아라는 말의 그리스적 기원이 시사하듯이 아시아는 유럽에 대한 잔여적 범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중화문명권에서 애당초 아시아 또는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없었고, 딜릭(Arif Dirlik)에 따르면 아시아라는 개념은 17세기 예수회 수사들에 의해 중국에 소개됐다고 한다. 서구에서는 현재의 동아시아를 지칭하기 위해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에 따라 극동(Far East)이라는 명칭이 20세기 중반까지 널리 쓰여 왔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미국으로 헤게모니가 옮겨가고, 특히 미국의 학자인 페어 뱅크와 라이샤워의 공저인 《동아시아: 위대한 전통》(1960)이 출간되면서 동아시아라는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서강대 정외과 강정인 교수에 따르면 동아시아 담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불어닥친 지구화의 물결과 긴밀한 연계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 담론은 적어도 한중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 3개국 지식인 및 정치인들에 의해 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강정인 교수는 "동아시아 담론은 19세기 말에 한중일 동양 3개국의 연대를 통해서 서구에 대항하고자 했던 역사적 경험과 논의가 있었다는 점과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서구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명으로서 서구문명에 대항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연대의 기억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동아시아 담론은 기본적으로 서구와 차이가 나는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을 표출함으로써 서구에 대항하는 담론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한중일을 지칭하는 '동양'에서 외연을 넓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다.

동아시아 3개국 중 유독 한국에서 동아시아 담론이 활기를 띠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수용과 더불어 근대의 서구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찾고 있다. 한편 서울대 인



이미 구미문학은 침체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제 문학의 판도는 유럽의 중심에서 벗어나 아시아 중심으로 이동됐다.

류학과 김광익 교수는 “탈근대 문명의 선구자임을 인정하는 일본은 한 중일을 한데 묶어 동아시아 문명이라는 광역 단위로 포섭하기보다는 일본 자체를 독자적인 문명으로 상정하는 일본인들의 인식이 깔려 있고, 오랫동안 중화문명 패권국이었던 중국도 동아시아 담론 자체보다는 중국 본토 자체를 하나의 문명 단위로 구상하거나 아니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화교를 아우르는 영역을 독자적인 문명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국내학자들이 동아시아 담론에 몰두하는 이유가 새로운 아태 시대가 온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자칫 거기서 소외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아시아의 중요 구성인자라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구미문학 침체로 아시아 문학 부상

동아시아 담론이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됨에 따라 ‘동아시아’를 키워드로 하는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한 대형서점에서 ‘동아시아’를 쳐봤더니, 359종의 출판물이 검색됐다. 인문, 자연과학, 여행, 역사, 경제경영, 종교, 문학 등 그 분야도 다양하다. 이 중 역사·풍속·신화가 82종, 사회·정치·법이 75종, 인문 46종, 경제경영 52종을 차지했다. 동아시아 담론이 확산되면서 출판계의 시각도 동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다. 동아시아 관련한 출판은 초기에는 정치, 역사, 경제 등 인문사회 분야에 주력하다 최근에는 문화와 문학 분야에도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국제문화포럼을 개최해 온 대산문화재단은 내년부터 ‘동아시아 작가포럼’을 매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포럼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준 대리는 “동아시아 담론이 대두되면서 동아시아의 공통된 문화의 기

반이 한자 문화권에서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기반을 통해 동아시아가 공감할 수 있는 폭을 점차 늘려가다 보면 동아시아 가치에 대한 당면과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문학을 통해서 접근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문학평론가 김재용 원광대 교수는 “미국, 영국 등 구미문학은 1960년대 이후 위기를 맞았고, 세계문학으로서 그 위상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구미문학은 침체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제 문학의 판도는 유럽의 중심에서 벗어나 아시아 중심으로 이동됐다”면서 동아시아 문학이 떠오르는 배경을 설명했다. 즉 구미문학의 침체와 아시아 문학의 부상이 정교하게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김재용 교수는 올해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아시아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은 ‘구미’ 중심의 문학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세계 문학의 판도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는 시집”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용 교수는 동아시아 문학의 출판이 동아시아 담론이 확산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았다. 동아시아 담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구미 문학의 위기로 자연스럽게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학이 돋보일 수밖에 없고, 구미문학으로 가려진 아시아 문학이 이제야 제 빛을 발산하는 시절이 온 셈이다. 이제 서구에 집중됐던 세계 문학의 지형도를 아시아권으로 다시 짜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